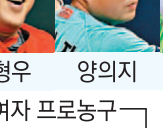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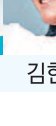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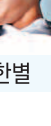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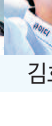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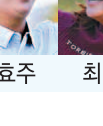



**와 함께하는
2020동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프로축구		남자 프로농구	
					
최형우	양키지	손준호	강상우	허준	김종규
여자 프로농구		남자 프로배구		여자 프로배구	
					
박혜진	박지수	나경복	정지석	양효진	임명목
남자 프로골프		여자 프로골프		특별상	
					
김태훈	김한별	김효주	최혜진	이동국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오늘 그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오전 11시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한국ABC 인증, 유료·발행부수 1위의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가 동아일보, 채널A, CMS(센트메디컬서비스)와 공동 주최하는 ‘CMS와 함께하는 2020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15일 열립니다.

동아스포츠대상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남녀), 프로배구(남녀), 프로골프(남녀)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 종목별로 ‘최고의 선수’를 시상합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5대 종목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직접투표로 ‘올해의 선수’를 선정합니다. 종목별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씩 총 8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연맹·협회의 운영 및 홍보 담당자로 구성된 동아스포츠대상 운영위원회가 수상자 후보군과 투표인단을 선정했습니다. 이어 종목별 30~50명의 선수가 직접 참여하여 8명의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올해로 23년간의 화려했던 프로경력을 마감하고 은퇴한 축구 스타 이동국(전 전북현대)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프로스포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아래 모범적인 리그 운영과 대회 개최로 전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과 안전을 고려하여 수상자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합니다. 시상식은 유튜브 ‘스타저장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 CMS(센트메디컬서비스)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스포츠도트코리아,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HIRO MATSUMOTO



1위
ABC 공인 유망·발달 선수
3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K리그 승리수당 폐지 추진 '5가지 딜레마'

K리그1 일부구단들 2~3년내 폐지 주장...오늘 연맹이사회서 논의

대부분의 K리그 구단들이 지급해온 승리수당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간 상대라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의 반발이 적지 않은 사안이라 폐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스포츠동아DB

- 1 표준계약서에 수당 등 옵션 명기
- 2 수당 폐지, 동기부여 약영향 지적
- 3 기타 수당의 편법 상승 가능성도
- 4 선수들간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 5 일방적 추진에 현장·타팀도 당혹

K리그가 승리수당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리그 복수의 관계자들은 14일 "선수단 승리수당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향후 2~3년 내 승리수당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복수의 구단 담당자들도 "일부 구단을 중심으로 승리수당을 없애자는 발의가 나왔다. 지금으로선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새롭게 계약할 선수부터 계약서에 (승리수당을) 빼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최근 K리그 대표자 회의에서 등장했던 '승리수당 폐지'는 1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당초 이 안은 "그간 암묵적으로 시행한 특정 경기 배팅을 금지하자"는 내용에서 시작했

다. 과거나 현재나 많은 구단들이 라이벌전,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는 거액의 당금을 제시한다는 풍문이 끊이지 않았다.

K리그에서 승리수당 폐지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클럽 법인화 작업이 맞물려 구단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2009년에도 관련 안이 등장했다. 선수단 보수는 승리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여와 출전수당만 지급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했다. 비용절감을 통해 구단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는 정착되지 못했다. 당시 '승리수당 폐지'를 명문화하는 것에는 모든 구단이 동의했으나 '위반 시 제재한다'는 조항의 삽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제도적 구속력이 없으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이 팽팽히 맞섰다.

지금도 대부분의 구단들이 승리수당을 지급한다. K리그는 연맹 차원의 '프로축구선수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하는데, 특약사항(옵션) 속에 승리와 출전, 공격 포인트, 무실점 등에 대한 다양한 보상조건을 삽입한다. 이만큼이 높을수록 수당 항목이 많은 편이다.

축구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장에선 부

정적 목소리가 많다. 선수들뿐 아니라 의무·장비 등 지원스태프도 수당을 받고 있다. 결국 승리수당을 없애면 팀 성과와 직결된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이 어렵고,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프로스포츠는 명예와 금전적 이득이 결린 무대다. 승리수당을 없애면 출전 등 기타 수당이 늘어나는 편법이 나올 수 있다. 또 저연봉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손해가 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A구단 지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구단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으나 선수단과 사전교감이 전혀 없었다. 과열경쟁 차단을 위해 배팅을 통제하는 건 이해하나 승리수당 폐지는 좀더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몇몇 구단도 당혹스러운 눈치다. B구단 고위인사는 "시즌 초 연봉삭감을 놓고 빚어진 사태와 다르지 않다. 선수들과 대화할 틈도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잉글랜드와 독일, 스페인 등 축구 선진국들이나 일본 등 라이벌 리그가 수당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모두를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오재일, 삼성과 4년 50억 FA 계약...최형우는 3년 47억 KIA와 재계약 ▶ 3면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No. 1

10년 연속 판매 1위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특별 이벤트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